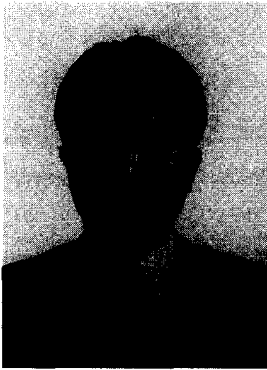


술에 관한 문학적 단상



韓 東 完

〈서강대 국문학과 교수·국어학〉

1. 술에 관한 문학적 단상

살다보면 다소 자신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제의를 받게 되고 이를 거절하는 데 진땀을 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렇게 흘리는 진땀은 어쩔 수 없이 응낙해 놓고 나서 그때 왜 딱 부러지게 거절을 못했을까 후회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흘리는 진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에 『주류공업』에서 ‘술과 문화’란 제목으로 수필을 써 달라는 청탁도 필자의 전공과는 무관한 것이었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제의라 할 만했다. 게다가 필자는 수필을 발표해 본 적도 전혀 없었으니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도 얼떨결에 몇 번의 고사 끝에 응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간곡한 부탁도 그 한 원인이기도 하겠고 ‘술과 문화’란 제목이 아니라 어떤 제목도 좋다는 제안이 있어서 ‘술에 관한 문학적 단상’ 정도로 쓰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른 것도 그 한 원인이기도 하겠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술과 필자가 맺은 끊을 수 없는 인연 탓이라. ‘술’이 아닌 다른 제재에 관한 글이라면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겠지만, 이번의 제의는 술과 관련된 것이라 엉겁결에 몇 마디를 더 나누게 된 것이 평소 술을 마시던 때의 호기(豪氣) 내지 허세(虛勢)를 갑자기 발동시켜 그만 약속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이 글을 탈고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끙끙 앓아 온 것은 마치 권해 주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밤새 과음한 뒤 뒷날 숙취로 괴로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술은 인간에게 무익(無益)하다는 주장이 옳은 것도 같다. 숙취로 끙끙 앓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을 흐리게 해서 실수를 하게 하기도 하고 건강을 해쳐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나라를 망치게도 하는 게 바로 술이니, 예로부터 ‘망신주(亡身酒)’나 ‘광약(狂藥)’이니 하는 이름이 생겨난 것도, 일부 종교나 국가에서 금주(禁酒)를 명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조치라 할 만하다.

불교는 수도자에게 금주를 계율로 정해놓고

있고 이슬람교는 더 나아가서 전교도(全教徒)에게 엄격하게 음주를 금지시키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도 일부에서는 음주를 정해 놓기도 하는데, 구약 성서의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 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는 기술이 나타나 있는 것은 술의 폐해를 이미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주의 법령에 의해서 음주 행위나 연령을 규제하기도 하는 것은 그만큼 음주에 의한 폐해가 심각한 데 따른 소치일 것이다.

동서 고금을 통해 술로 인해 폐망을 겪은 사례는 한 개인의 몰락에서부터 한 국가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술하다 하겠는데, 이 글에서는 우리네 문학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 보기로 하겠다.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시가로 일컬어지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는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절규가 드러난 시가이다.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예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임이여, 이 일을 어찌할꼬.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이 노래는 기원전 3세기 고조선 시대에 불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노래에는 노래가 지어진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다.

진(晉) 나라 최표(崔豹)의 『고금주(古今註)』에 의하면, 고조선 나루에 광리자고(廣里子高)라는 나루지기(津卒)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배를 저어서 간다. 그런데, 한 백수광부(白首狂夫), 곧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이 머리를 풀고 병

을 들고 물을 건넌다. 그 아내인 듯한 여인이 좇으며 외쳐 막았으나, 미치지 못하고 마침내 그 미친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다. 이에 그 아내는 공후를 끌어당겨 타며 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참으로 구슬프기 이를 데가 없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녀 또한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게 된다. 이를 다 목도하고 집에 돌아온 자가 아내 여옥(麗玉)에게 그 광경과 노래를 이야기해 주니, 여옥이 슬퍼하며, 곧 공후로 그 소리를 본받아 타니, 듣는 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음이 없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서 '정렬(貞烈)의 여심(女心)', 곧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한다는 여인의 의지를 엿볼 수 있기도 하지만, 한 광인의 죽음과 이에 따르게 된 남편의 비극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수광부가 들고 있는 병이 무슨 병인가 하는 것인데, 아마 틀림없이 술병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기에 어떤 분은 이 노래를 사랑과 죽음을 서로 맞바꿀 수 있다는 강렬한 애정지상주의(愛情至上主義)를 나타낸 것이라 해석하고, 이 노래에 등장하는 백수광부는 주신(酒神), 그 아내는 주신을 따라다니는 악신(樂神)이라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펴려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주신(酒神)은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 로마신화의 '바카스', 그리고 악신(樂神)은 'нім프'에 해당된다 할 만하다.

그러나 사랑하는 두 남녀의 삶의 비극적 종말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이런 비극에 이르게 한 현상적 원인이 바로 '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백수광부의 그 미친 상태도 정신 질환의 병리적 상태에서 일어난 광기가 아니라, 그 본적인 까닭은 달리 있을 수도 있겠으나 현상적으로는 음주벽이거나 도취적인 주광(酒狂)에서 비롯

된 광기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광기가 죽음에 까지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백수광부는 우리 나라 문학에 최초로 등장하는 광인으로서, 술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최초의 등장 인물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술의 폐해가 심각해서 그 규제 또한 만만치 않다 해도 술이 인간생활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엄연한 사실이자 현실이다. 관혼상제(冠婚喪祭)와 같은 의식적(儀式的) 행사, 곧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통과제의적(通過祭儀的) 성격의 의식적 행사에는 물론이고, 인간이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서 치르게 되는 각종의 행사에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술이 끼지 않는 경우란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술이란 것이 물질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실제상에서는 다분히 정신적 존재물이란 것을 말해 준다. 술이라는 물질을 통하지 않고서 풍류(風流), 흥취(興趣), 신명(神明), 도취(陶醉), 호기(豪氣), 낭만(浪漫), 애수(哀愁) 등과 같은 정신적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술의 폐해를 이야기하는 문학 작품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반면에 술을 예찬하고 술에 탐닉하는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이런 연유에서일 듯하다.

다음 작품은 영국의 희극작가 RB 세리든의 『주덕송(酒德頌)』 일절인데, 변영로(卞榮魯) 선생께서 역출(譯出)한 바 있는 것을 그대로 소개한다.

술병은 우리 식탁 위의 태양.
그의 양광(陽光)은 감홍색(甘紅色) 술.
우리는 그의 위성들

그의 도움 없이는 부추김 없이는
우리만으로는 빛나지 못하리.
환락과 환희는 끝도 없어라.
그가 빼임 일순회(一巡廻)하면
우리는 그의 차광(借光)으로 따라 빛나리.

이 작품에서는 술을 통하지 않고는 환락과 환희에 통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술병이라는 태양을 빙빙 도는 위성에 불과한 존재라는 식으로 술에 대한 예찬을 늘어놓고 있다.

내친 김에 피천득(皮千得) 선생께서 소개한 바 있는 예이츠의 시를 한수 더 적어 본다.

술은 입으로 오고
사랑은 눈으로 오나니
그것이 우리가 늙어 죽기 전에
진리(眞理)라 알 전부이다.
나는 입에다 잔을 들고
그대 바라보고 한숨 짓노라.

이 시에서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 느끼는 물질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 작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아니 동격(同格)의 위치에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술이 사랑을 복돋우는 존재라는 것은 고금의 술한 문학 작품에서 드러난 바이고 우리 문학에서도 이에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다음에 소개하는 우리의 고려 가요 『청산별곡(靑山別曲)』의 한 연은 어석(語釋)에 따라 우리네 여성의 전통적인 사랑의 방식을 노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관심을 끈다.

가더니 배부른 독에 살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룩이 매워 잡사와니 내 어찌 하리잇

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 노래에서의 서정적 자아를 남성으로 보아 온 것이 일반적 해석이었다. 그리하여 “가더니 배 불룩한 술독에 진한 술을 빙는구나. 조롱박꽃 누룩이 매워 (나를) 붙잡으니 나는 어찌하리오” 라는 정도로 해석되어 왔고, 그리하여 술을 아니 먹을 수 없다는 권주가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김완진(金完鎭) 교수의 새로운 어석(語釋)에 의해 시적 자아가 여성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잡사와니’에 나타나 있는 ‘사와’(-습-)는 객체 높임의 요소이기 때문에 객체 높임의 자리인 ‘잡사와니’의 목적어에 일인칭 ‘나를’이 올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해석의 중요한 단서인데, 곧 자신이 자신을 높이는 어법은 아무리 지존지상(至尊至上)인 임금인 경우라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임금이 자신의 행위를 기술하면서 “내가 그리하셨노라.”라고 할 수 없듯이 객체 높임의 자리에는 화자 자신이 아닌 높임의 대상이 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제의 이 구절은 “잘 빙어 놓은 강술이 님(남성)을 붙잡으니 나(여성)인들 어찌하리오” 정도로 해석되고, 이에 따라 여성적 화자가 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님에 대한 노골적인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이 잘 빙어 놓은 술이 님을 붙잡는다는 식으로 간접화된 은근한 유혹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 작품은 정열을 내뿜는 사랑이 아니라 은근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우리네 여성의 전통적인 사랑 방식과도 절묘하게 부합된다 할 것이다.

술을 예찬하고 있는 작품에서 드러나는 정서

작용으로 흥취(興趣)만큼 두드러진 것은 없고, 우리의 경우는 시조나 가사 작품에서 한국적 풍류의 멋진 흥취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긔괴여 님은 술을 葛巾(갈건)으로 뺏타 노코,
긔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和風(화풍) 건드 부러 綠水(녹수)를 건너오니,
清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낙홍)은 옷새
진다.

정극인(鄭克仁)의 가사 작품인 『상춘곡(常春曲)』의 일부분을 옮겨 놓은 것인데, 취락(醉樂)과 취흥(醉興)에 젖어 유유자적(悠悠自適)하는 풍류 생활을 여실히 그리고 있듯 작품이다. ‘긔괴여 님은 술을 葛巾(갈건)으로 뺏타노코’(이제 막 발효하여 익은 술을 갈포로 만든 두건으로 걸러 놓고)는 도연명(陶淵明)이 갈건을 벗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는 ‘갈건녹주(葛巾鹿酒)’에서 인용한 말로, 소탈하고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긔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꽃나무 가지를 꺾어, 잔 수를 세어 가면서 먹으리라.)는 보다 멋있게 흥취를 돋우며 술을 마시려는 뜻을 나타낸 구절로서, 그 유명한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장진주사(將進酒辭)」의 한 구절인 ‘한 잔 먹세그려 또한잔 먹세그려 꽃꺼어 算(산) 놓고 無盡無盡(무진무진) 먹세그려’에도 보이는 구절이다.

정철의 이 구절은 주객(酒客)들에게 널리 회자되어 왔던 것으로, 이 구절을 읊조리며 술의 흥취를 북돋우던 기억이 필자에게도 새록새록하지만, 칵테일 한 잔을 여러 번에 나눠 마시거나 맥주 한 병을 훌쩍훌쩍 여러 번에 나눠 마시는 요즘의 신세대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절 이리라.

송강 정철의 작품인 다음 시조에서도 한국적 풍류의 멋진 흥취를 찾아볼 수 있다.

재 너머 성권농(成勸農) 집에 술 익었다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지줄타고
아해야 네 권농 계시나 정좌수 왔다 일러라.
(* 언치 : 안장을 엮을 때 마소의 등에 까는
털형겂.)
(* 지줄타고 : 놀러타고.)

전체적으로는 술 벗을 찾아가는 즐거움으로
성급해진 심사가 흥겨운 행동과 더불어 형상화
되어 있는데, '발로 박차'와 '지줄타고'는 바로
이러한 흥겨움을 나타낸 말이라 할 것이다.

초장에서는 성권농 집의 반가운 술소식을 옛
그제 듣고 기뻐하는 정경이 사실적으로 표현되
어 있으며, 소를 타고 서둘러 벗을 찾아가는 장
면을 그리고 있는 중장에서는 흥겨움과 신바람
이 절로 나는 정경을 엿볼 수 있다. 종장에 이르
면 이러한 흥취는 술꾼 특유의 미소를 자아내게
하는 허세(虛勢)와, 풍류가 넘치는 교우(交友)로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술을 한껏 마시고 도취 상태에 빠져 호기 내
지는 허세를 부리는 것, 어쩌면 이것만큼이나 술
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없을 듯싶고,
이를 노래한 시도 적지 않다.

새맑은 유리컵에
홍근히 고인 호박빛 액체
나무 무적함대(無敵艦隊)의 사령관장인 양 자
못 호기(豪氣)로이
나의 적은 해양(海洋)을 응시(凝視)한다.

동그란 해안선에
넘치는 흰 거품
아하, 인류 백억(百億) 해의
역사가 서렸구나.

안개인 양 자욱히 피어오르는 향기 속에
'시간'은 갈매기같이 나르고
나의 좌석은
갑판(甲板)보다 더욱 흔들거린다.

어허, 이것 봐라. 하늘이 도는구나.
물매아미같이 뱅글뱅글 하늘이 돌던 말이-
저 놀랍고도 새로운 천문학적 진실 위에
세대의 윤리는 성좌(星座)같이 찬연(燦然)하
다.

여보게, 나는 이제
이 호박(琥珀) 빛 액체가 주는 마술을 빌어
나의 새끼 손톱으로
요놈의 지구덩이를 튀겨 버리려네.

김동명(金東鳴)의 『술노래』인데, '새맑은 유리
컵에 홍근히 고인 호박빛 액체', 곧 술을 바라보
면서 벌써 호기를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첫
연에서는 술을 광대무변한 '해양'에 비유하고
있고, 둘째연에서는 술에 '인류백억 해의 역사가
서려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술을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마음은 어느새 도취에 빠지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한 잔 두 잔 거듭하면서
'갑판이 흔들거리는' 것을 느끼다가 이윽고 '하
늘이 뱅글뱅글도는' 도취 상태에 빠져, 급기야는
술의 '마술을 빌어' '지구덩이를' 손톱으로, 그
것도 '새끼 손톱으로 튀겨 버리겠다'는 식으로
엄청난 '호기' 내지는 허세를 부리고 있다. 그야

말로 술이 지닌 매력적인 속성과 도취 상태가 일으키는 정신의 고양 상태를 멋있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상기케 하는 시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송강 정철의 시조 작품에서 확인되었듯이, 술은 격의(隔意)없는 교우 관계의 윤희유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오상순(吳相淳)의 『한잔 술』의 한 연에서도 이런 역할이 잘 나타나 있다.

나그네 주인이여
편안하시고
곁에 앉힌 술단지
그럴 법하이.
한 잔 가득 부어서
이리 보내게
한잔 한잔 또 한잔
저 달 마시자
오늘 해도 저물고
갈 길은 머네
꿈 같은 나그넷길
멀기도 하이!

‘꿈같은 나그넷길’에 있는 서정적 자아가 하룻밤 쉬어 가면서 주인과 ‘한잔 한잔 또 한잔’ 술을 주고 받으며 마시는 장면에서 격의 없는 우정이 오고 가는 것을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술단지’ 든 술, 그리고 ‘한잔 가득 부은 술’은 막걸리 정도일 것인데,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보이는 ‘긔괴여 닉은 술을 葛巾(갈건)으로 닦아 노코’라는 구절에서 드러나는 소박한 풍류와도 접맥된다 할 것이다.

술의 정신 작용이 이상 살펴본 대로 ‘풍류(風流), 흥취(興趣), 신명(神明), 도취(陶醉), 호기(豪氣)’와 같은 남성적인 활달한 기상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낭만(浪漫), 애수(哀愁)’ 등과 같은 여성적인 애상미를 자아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生涯)와
목마(木馬)를 타고 떠난 숙녀(淑女)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木馬)는 주인(主人)을 버리고 거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傷心)한 별은 내 가슴에 가벼웁게 부쉬진다.

〈중 략〉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회미한 의식(意識)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靑春)을 찾는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거저 잡지(雜誌)의 표지(表紙)처럼 통속(通俗)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木馬)는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컷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메어 우는데—

1950년대 모더니즘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박인환(朴寅煥)의 『목마의 숙녀』이다. 이 시

가 발표된 1955년은 6·25 직후로서 당시는 허무주의적 위기 의식, 실존주의적 고뇌, 현대 문명으로 인한 인간 상실의 비극성 등을 그 정신사적 배경으로 질게 깔고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민감한 시인은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서는 떠나가는 것들에 대한 허무와 절망감을 절실히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목마'는 전후의 허무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강박 관념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텀즈 강에 몸을 던짐으로써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영국의 여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1882~1941)의 비극적 생애를 연상케 하는 시어이다. 결국 '목마'란 인간의 삶과 정신을 와해시켜 버리는 현실에서 이미 자취를 감춰 버린 지난 시대의 표상이라할 만하다.

그렇지만 시인은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고 하면서 절망적 현실에 대한 체념을 술으로써 위안하는 자세를 드러내 보인다. 언뜻 보면 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 한 젊은이의 정신적 고뇌와 방황이 술을 마심으로써 퇴폐적인 애상으로 빠지게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에서 오히려 낭만적이고 감미로운 서정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시인이 선택한 '목마, 별, 소녀, 등대' 등과 같은 시어에서도 느낄 수 있는 바이지만,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와 같은 구절이 그러한 서정적 분위기를 복돋우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 우리는 술이 각박하고 삭막한 현실 생활에서 오는 괴로움과 시름을 잊게 하고 위안

을 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현실 생활의 괴로움과 시름을 달래는 데 술만한 것은 없고 이를 노래한 시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신경림(申庚林)의 『농무(農舞)』의 전반부인데, 농무가 끝난 뒤 소줏집에서 답답하고 고달픈 심정을 술로 달래고 있는 부분이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위상을 상실하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를 지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농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이 작품은 술을 마시고 오히려 농무를 춤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애환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제 격에 어울리지 않는 청탁에 답하기 위해 '술에 관한 문학적 단상'을 해 보았다. 술이란 존재가 없이는 인생사의 흥취나 멋의 깊이가 한결 낮아질 것이 틀림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해 본 것으로 이 글의 의의를 삼으며 글을 마친다.